머리말 _ 5

만당 이혜구 국악 연구 반세기 11
故 운초 장사훈 박사의 가악 연구의 재조명 29
故 장사훈 박사를 애도하며 37
故 김월하 선생을 회상하며 41
故 금헌 신쾌동 선생 서거 20주기 기념
학술대회 및 연주회에 제하여 43

국민학교부터 전통음악을 45
국악교육의 현대적 과제 47
국악교육의 의미 및 방향 55
국민학교 국악교육의 문제점 63
한국음악교육의 반성을 통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 69
한국음악교육과 방송 81
전통위주의 음악교육을 83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 창설 40주년을 맞이하여 91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의 발전방향 93
국민학교 국악교육의 정상화 97

국립국악원 국악당건립과 전통예술 99
국립국악원의 역할과 기능 107
국립국악원과 방송 활동 113
국립부산국악원 창립을 촉구한다 115
임오년 새해를 맞이한 국악관현악단에의 기대 117

경기 전통음악의 계승 및 발전방안 ····· 119
가창교재로서의 민요 ····· 127
국악대중화의 지름길은 없는가? ····· 129
'국악 퓨전 콘써트'의 허와 실 ····· 137
국악경연대회 이대로 좋은가? ····· 141
각 방송 국악프로그램의 활성화 ····· 143
빛과 소리의 만남의 의의 ····· 145

한국의 구전민요 ····· 151
서민의 노래 민요 ····· 159
민요가 살아 있는 곳 ····· 165
민요에 나타난 민중의 얼굴 ····· 183
민요는 인간 구원의 절규 ····· 193
방송민요채집기 ····· 201
민요 ····· 207
민요는 민중의 노래이다 ····· 215
한국 전통민요와 전통사회 ····· 225
민요와 함께하는 문화관광 ····· 231
한국 자장가의 일반적 특징에 대하여 ····· 235
묵계월 창 송서 〈삼설기〉의 음악적 특징 ····· 241
서울의 12잡가 ····· 249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음악부문) 지정의 문제점 ····· 267
태백산 무속음악의 특징과 보존방향 ····· 269
남도음악과 장흥 ····· 277
정렴의 도교음악과 고려노래(안동준 교수)에 대한 토론 ····· 283
한국의 궁중음악 ····· 285
종묘악과 문묘악의 일무는 과연
올바로 전승되고 있는가? ····· 291

새로운 비교음악학의 시도 ····· 295
한국 민요의 민족음악학적 연구의 문제점 ····· 299
기원전 1세기 현악기 발굴의 음악사적 의의 ····· 305
민족음악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문제점 제기 ····· 309
한국민속음악학의 민족음악학적 연구 ····· 315
한국음악학의 최근 경향 ····· 327
한국음악학의 연구방법에 따른 인접학문과의 관계 ····· 335

우리 식의 청각문화 ····· 347
전통음악의 기록보존 ····· 349
진정한 국악평론의 활성화 ····· 351
한국음악학의 경과와 전망(송방송) 논평 ····· 353
송방송 저 『한국음악사연구』 서평 ····· 359
장사훈 저 『한국전통무용연구』 서평 ····· 365
『한국악기』 서평 ····· 373
「모심는 소리의 유형과 형식」에 대한 논평 ····· 375
「문화적 측면에서 본 한국전통음악의 분류방법서설」에 대한 논평 · 377
한국전통음악 학술용어 재검토의 필요성 ····· 379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새로움 추구해야… ····· 385
전통음악계의 반성 ····· 389
큰 잔치를 벌였는데도 치레로만 끝난 여러 행사 ····· 393
해외에 심은 우리의 전통음악 ····· 395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399
치장에 공이 더 든 부산한 한 해 ····· 407
'국악의 향연'과 '축전 국악제' ····· 413
우리 것 인식 싹텄으나 따라주지 못했던 공연들 ····· 419

전환기의 국악 425
넘치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기엔 역부족 429
아쉬움 남긴 연주회들 433
예술적분위기의 연주회를 439
국악의 현대적 연주도 가능하다 445
지나친 의욕과 놓쳐버린 예술적 진솔함 451
읊조리듯 입 속에서 흐르는 가락 455
표면적인 활성화보다는 내실을 다져야한다 465
과연 국악의 전성시대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471
국악계의 인간문화재(속칭)는 제대로 전승되고 있는가? 475
우리민족이 다함께 모여서 부를 수 있는
우리노래는 없는 것인가? 479
2002년 한·일 궁중음악 교류를 통한 성과와 과제 483
아시아 전통공연 예술사 연구의 필요성 487
전통공연예술 진흥방안 491
90년대의 한국예술의 방향 495
한국음악학에 대한 논의의 터를 닦는다 501
금년도 음악계를 결산한다 505
국악을 수용할 가슴은 열려 있다 509
과거를 돌아보며 새천년을 맞는 국악의 미래와 전망 515
새소재 개발로 창극계 큰 활기 519
국악계가 안고 있는 오늘의 문제점 523
전통음악 연주계의 새 이정표 533
다양한 연주 양상 보였던 6월의 국악계 539
음악 문화의 편식에서 벗어나자! 545
국립시청각 자료관 Archive 설립 운영의 필요성 547
동요를 통한 한민족의 동질성 확인 549
평창농악의 음악적 특징 559